



보도 일시	2022. 10. 17.(월) 11:00 10. 18.(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17.(월) 09:00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책임자	팀 장 오미란 (044-201-1565)
		담당자	사무관 정재균 (044-201-1569)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선언문낭독·이웃사랑나눔행사를 통해 여성농업인 역할 강조 및 활약상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8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참여단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가주부 모임전국연합회, 농식품여성CEO중앙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월 15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에서 유래*되었으며, 농촌사회와 농업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고 이들의 권익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11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 '07년 국제연합(UN)은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로 제정,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특히 올해 제1회 기념행사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경제활동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농업의 미래·농촌의 희망’을 주제로 정하였다.

행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기념일 제정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여성농업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축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가 뜻을 모아 작성한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력자나 남성에 종속된 농가 구성원이 아니라 당당한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발돋움했음을 알리고, 국내외에 인류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결의도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가 힘을 모아 올 한해 땀 흘려 가꾼 농식품들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6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기탁한 쌀 3톤, 2,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국 21개 사회복지관계기관을 통해 총 968명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이번 행사는 10월 18일 11시부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tv, www.youtube.com/c/mafrakorea)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중계 영상은 행사 이후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행사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여성의 농업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 성평등 문화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
2.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경위 및 국내외 기념현황
3.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선언문



여성농업인, 농업·농촌의 미래!

제 1회 여성농업인의날

2022. 10. 18. 오전 11:00 양재 더케이호텔



농림축산식품부

시간	내용
11:00~11:05	행사 소개 영상
11:05~11:10	오프닝 / 국민의례
11:10~11:20	기념사 / 축사
11:20~11:30	축하메세지
11:30~11:40	유공자 포상
11:40~11:50	축하공연
11:50~12:00	이웃사랑 나눔행사
12:00~12:10	선언문 낭독
12:10~12:15	퍼포먼스

□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경위

- ①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세계 쌀의 날인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
 - * 농촌지역 경제발전·세계 식량생산과 식량안보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자는 취지로 제안
- ② UN은 1997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선포(매년 10월 15일)하였으며 ‘07년 UN차원의 기념일로 공식 제정
 - ‘각 국가 및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 국내에서는 UN에서 공식제정된 ‘07년도를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시작 시점으로 판단
- ③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의 존재, 국내 여성농업인 역할확대·위상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 「여성농업인 육성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22.11)

□ 국내외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현황

-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이후(‘19.7) 매년 10월 15일 여성농업인단체·유관기관과 함께 기념행사 개최(‘20.10, ‘21.10)
 - * 1·2회 행사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2년부터는 국내법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음을 감안, ‘세계’를 삭제하고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로 변경
- (지자체) 강원도에서 ‘21년부터 매년 자체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 등에서 여성농업인의 날을 조례 등에 제정
- (UN) 1998년부터 매년 실천강령을 선포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 실천강령*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독려
 - * (‘10) 여성농업인 자신과 그 딸의 교육권(Claim your right and your daughters’ Right to Education), (‘12) 농촌여성의 경제적지위 강화(Economic Empowerment of Rural Women)
- (일본) 1988년부터 ‘농산어촌여성의 날’을 지정, 농림수산성·지자체 등에서 관련행사 개최(‘21년 일본전역에서 87개 행사 개최)
 -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 ‘여성의 참획 촉진’이라는 문구에 근거, 농림수산성 내 농산어촌여성의 날 실시요강이라는 내부규정도 제정·운영중

<서문>

농업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생명과 땅, 농촌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의 삶을 지켜왔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생명력을 보존하여 후대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농업농촌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과 기여에 비해 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지위 인정·가치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농업은 위기와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지된 개발 지상주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게하고 불평등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 위기가 가속화되었고, 인구의 공동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폭염과 홍수·장마 등 심각한 이상기후는 농업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농업인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여성농업인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소외되었습니다.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할 때 비로소 사회와 국가도 지속가능합니다.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 여성과 남성의 공생적 관계의 복원이 중요합니다. 종자나 땅의 생태친화적 사용을 위한 적정기술을 공유하고 작물 전환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많이, 빨리, 보기 좋게라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필요와 신뢰에 기반을 둔 평화와 상호존중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은 식량 생산을 넘어 생명을 생산하고 공동체의 생존을 떠받치는 존재로 등장하였습니다. 서로 단합하고 연대해 생명을 키우고 나누며 공동체를 복원하여 삶을 연결하는 참살이의 주체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은 물론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기를 잃어가는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인간이 함께 누리는 좋은 삶’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로 삼아 농업의 중차대한 위기에 대응하려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가의 발전, 모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담아서 ‘여성농업인 10대 행동지침’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 행동지침 >

1. 여성농업인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장중심적 사회발전을 멈추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 생명체들의 공생과 행복,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2. 여성농업인은 성별, 나이, 인종, 국적 등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3. 여성농업인은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곧 인류 멸종을 불러오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농업·농촌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4.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주권과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와 기술 등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확보할 것이다.
5. 여성농업인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할 것이다.
6. 여성농업인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종자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거래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깨닫고 농업생산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여성농업인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농업의 주체로서 먹거리 자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여성농업인은 농촌에서 살고 일해 갈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에 대한 희망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10. 여성농업인은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해 세계 여성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연대와 공감으로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2022년 10월 15일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식품여성CEO중앙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